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대행지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로정부서설청사에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

‘달빛철도·국립의대 신설’ 해빙기는 광주·전남 속원사업 광주 자원회수시설·영산강 익사이팅존 ‘수사’ 무안공항 장기 폐쇄, 흑산공항 타당성 조사중

광주시와 전남도의 일부 현안 사업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역민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속원사업에서 해법은 과제까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표류하거나 국회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한 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고속철 사업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이 중단됐다.

달빛철도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를 광주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동서 횡단철도로 4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

광주를 출발해 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대구까지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1시간에 경유하도록 설계됐다.

2021년 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3년 만인 2024년 1월25일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같은 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로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탄력을 받았지만,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사실상 중단됐다. 당초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국무회의를 통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2035년으로 미뤄졌다.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사업들은 수사와 범정 다듬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광산구 삼거동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찬성에 의견을 던진 주민 일부가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시도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위장 전입자와 입지 신청인을 고소,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작업은 중단됐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도 운영사 측과 210억원대 중재에 휘말려 대한상사중재원의 아홉 번째 심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 친수공간 정책 Y-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익사이팅 조성사업도 경찰 수사로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실제 설계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 속 심사 단계에서 비위 행위가 드러나 중단됐다.

이 밖에도 건축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동아시아플랫폼·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 사업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새정부들어 특별한 보상의 객체가 된 전남의 주요 현안 중 일부 사업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통합 대학교 국립의대 신설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립 목표대와 순천대 간 통합이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정부 방침에 부합한 1도 1국립대를 전제로 한 의대 신설이 가시화 됐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 국립의대 개교를 확정 짓지는 못했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료 취약지이자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30여년 이어져 온 오랜 숙원이 풀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로 1년 가까이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의 정상화 시기에도 관심이 다. 공항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사회단체와 관광업계에서는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정상화 이전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항공 안전시스템 재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남권 관문공항인 무안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신안 흑산공항 건설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고 있다. 당초 50인승으로 설계했던 규격을 80인승으로 높이고 활주로를 종단 안전구역을 30m에서 90m, 착륙대는 50m에서 120m로 확대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광훈 기자

보성·해남 1등급, 여수 5등급... 기초지자체 청렴도 ‘극과극’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전남 기초지자체와 각 기초자치단체의 성적표가 극명히 엇갈렸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보성군과 해남군이 1등급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가 하면 여수시가 유일하게 5등급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는 북구가 2등급으로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오른 한편 광산구가 지난해 대비 한단계 떨어진 4등급을 받아 가장 낮은 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기초의회 중에선 보성군의회가 1등급을, 강진군의회가 5등급을 받으면서 극과 극을 보였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남 기초지자체 중 보성·해남군이 종합청렴도

보성 4년 연속 청렴도 1등급·해남은 1년 만에 두계단 ‘폴짝’
 광주 5개 자치구, 북구 2등급·광산구 4등급 상하향 엇갈려
 기초의회 중 보성군의회 2년 연속 1등급·최하위는 강진군

1등급을 얻었다. 보성군은 4년 연속 1등급을 기록하는가 하면 해남군은 1년 사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두 계단이 올랐다.

뒤이어 담양·진도군이 2등급을 기록하면서 전년도와 같은 순위를 보였다. 목포·순천시와 강진·고흥·곡성·무안·영광·장성·장흥·함평군이 3등급을 기록한 가운데 함평군이 지난해 대비 두 계단오르고 순천시가 한 계단이 떨어졌다.

광양·나주시와 구례·신안·영암·완도·화순은 4등급을 기록했다. 4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평가를 받은 가운데 완도가 유일하게 두 계단 떨어졌다.

여수만이 전남도 시·군 중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에서는 북구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올라 2등급을 기록, 뒤이어 동·남·서구가 3등급을 차지했다. 광산구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지면서 광주 자치구중 가장 낮은 4등급 평가를 받았다.

전국 각급 지방의회 대상 전수 평가에서는 광주·전남에서 보성군의회만이 청렴도 1등급 평가를 받았다. 보성군의회는 1등급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뒤이어 광양·여수·나주시의회와 고흥·

담양·무안·영암·완도·장성·함평·해남·화순군의회, 광주 광산구·남구·동구의회가 2등급 평가를 받았다.

목포·순천시의회와 신안·장흥·진도군의회, 광주 북구·서구의회가 3등급으로 뒤를 이은 한편 곡성·구례·영광군의회가 4등급을 기록했다.

이밖에 강진군의회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지면서 광주·전남 기초의회에서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등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민원인과 기관 내부 공직자 등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점)’와 기관의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점)’를 합산한 뒤 ‘부패 실태 평가(10점)’를 감안해 이뤄졌다. /기초취재부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어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섭(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